

우리집 "한심보호막"

Home Mat
홈·매트®



여성신문

창간 14주년

제 686 호

2002년 7월 20일~26일

www.womennews.co.kr/woman@womennews.co.kr

1988. 4. 30. 등록번호 다-531호 <제3종 우편물> (가)급인가/발행인 편집인 이계경/발행처 (주)여성신문사 (우)100-120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15-5/인쇄인 황태랑 대한교과서주식회사/편집국 (02)318-2797/사업국 (02)318-2792/판매국 (정기구독신청) (02) 318-2791/광고국 (02)318-2790/ FAX (02) 318-2793

이제는 여성 총리 시대다

야당과 언론의 무차별 공세에 당달아 총리서리에게 운신의 폭을 좁히라고 요구하던 민주당이 돌연 장상 총리서리가 직무수행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하다고 발표하며 방향전환을 하고 나섰다.

지난 17일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장서리 방문을 거부한 것에 대해 여론은 부정적이었다, 최초 여성총리 임명에 대해서

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김무성 의원의 발언은 여성비하적인 발언이었다는 점을 여론조사 결과로 내놓으며 장상 총리 업호에 나섰다.

이런 민주당의 방향전환은 11일 개각 이후 하루가 다르게 색다른 주제로 첫 여성총리를 난도질하던 언론도 더 이상 소재가 바다나 공세가 한풀 꺾인데다 여성

계가 비록 여성인사들 개인 차원의 참석이긴 하나 장 총리서리 지명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공식적인 자리를 마련키로 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여성들은 그동안 수십년간 계속된 남성들만의 헌정 관행은 눈감아 주다가 새삼 여성이 총리로 지명되니까 문제삼는 한나라당이나 공직을 맡게될 사람에게

최소한의 업무나 하면서 당분간 적극적인 활동을 자제하라고 요구하는 민주당이나 어처구니 없기는 마찬가지라고 비판해왔다.

여성계는 이같은 양당의 태도를 보며 법 개정 이후 처음 열리는 인사청문회에 첫 여성총리가 심판대에 서게 되는 중대한 시점을 앞두고 양당은 청문회 준비를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다.

총리 지명 이후 한 목소리를 담은 공식적인 입장 발표를 유보한 채 여성총리 지명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를 마련하기까지 참으로 많은 말들과 고민들을 나눈 여성계는 '장상'이라는 개인을 떠나 여성총리의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여성계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국민이 해야 한다는 바람을 갖고 있다.

박정 희경 기자/관련기사 16, 17면